

【제2주제】

**향토자원의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책방향**

배 영 동
안 동 대 학 교

【제2주제】

향토자원의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책방향

배 영 동
안동대 교수

1. 머리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원과 자원이 아닌 것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원은 사람들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자원이었던 것이 아니다. 그 자원도 사람들이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혹은 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원으로 평가된 것이다. 애초에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과정에는 역사의 발전과 문화의 변동이 작동하였다.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바뀌게 되면 무엇이 자원인지 여부에 대한 생각은 계속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원가치가 없는 것을 자원가치가 있는 것으로, 혹은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자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원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원개발은 미래지향적 작업이다. 지금 당장에는 자원가치가 별로 없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자원가치가 대단히 큰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것은 아득한 옛날에는 보잘것없던 것이 지금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수하다는 경험적 역사가 입증해준다. 따라서 자원개발이 미래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찮은 대상(things, objects, facts)으로부터라도 자원가치를 발견하고, 대상에 자원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원 개발은 대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된다. 하찮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면 그 속에 깊은 의미와 가치가 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바로 자원 아닌 것을 자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그 대상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분석을 해보면 자원 가치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 또는 사회에 있던 어떤 대상을 자원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그 집단 안에서 유용한 것으로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종래와 다른 문화나 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전 인류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인정받고 통용되기 위해서도 그에

적합한 정책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유용한 것이 세계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생명력이 짧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가 갖는 '세계체제(world system)'라는 특성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세계체제' 아래서는 문화다양성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문화다양성을 무시하게 된다면, 힘 있는 국가와 민족에게 전 세계 모든 문화가 종속되어, 마침내 힘없는 국가와 민족의 문화는 사라지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공존공영을 해야 할 존재이지, 어느 일방에 종속되거나 수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문화는 민족이나 집단마다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를 강조하여 왔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문화연구의 기본수칙으로 통용되고 있다.

문화상대주의의 참뜻을 잘 되짚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원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수많은 대상도 어쩌면 근대적 사회체제, 서구식 교육제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되면서 그 가치가 어치구니없이 평가절하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원래 우리에게는 삶의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서구식 가치관이나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 무수하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자원가치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듯이 우리의 전통적인 것이 많은 가치를 함축하고 있었음에도 근대 이후 지식인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든지, 혹은 가치가 발견되지 못하여 사장되어 왔다.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전통적인 것에 대하여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만사지탄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전통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 그 가치를 현대인들의 삶에 이식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더 나아가 한국적 전통을 세계체제 아래서도 그 유용성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데 있다. 늦었다 손치더라도,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득인 셈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향토자원, 특히 전통적 지식을 여하히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과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문화가 적지 않게 단절되고, 사회체제가 재편된 상황에서, 우리의 향토자원 특히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지식을 그대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다분히 맹목적 복고주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통지식을 비롯한 향토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활용하고, 그 '지식의 논리'와 '삶의 이치'를 계승하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 전공의 한계로 말미암아, 밑그림을 그리는 데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미리 할 수밖에 없다.

2. 향토자원의 개념과 범위

1) 향토자원의 개념

향토자원이란 말은 행정적 용어로 널리 쓰인 듯하다. 김현호(2004) 등에 따르면, 이 용어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향토적 특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라는가, “향토적 특성이 배태되어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정한 지역 고유의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되고 있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향토자원은 ‘향토’라는 단어에 ‘자원’이라는 단어가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향토라는 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일본은 독일에서 산업화 이후에 널리 쓰기 시작한 고향이라는 뜻의 heimat를 향토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요한 것은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향이니 향토니 하는 말이 대중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은 공업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강력하게 형성된다. 향토자원이라는 말이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는 배경도 바로 공업화·산업화·도시화의 가속화에 있다.

그리고 자원이라는 말이 향토에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공업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멀어져버린 고향 또는 향토, 사실상 그것은 대부분 시골이었으므로, 시골의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의식에서 촉발되었다. 시골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는 태도는 공업화·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나 파묻혀버린 것이 많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향토자원이란 말은 잊혀진 고향과 시골을 재발견하려는 운동과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의미를 한층 강화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향토자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과 ‘사회적 활용가치’를 그 요건으로 한다.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 나름의 특성이나 개성을 말하는 바, 이는 자연환경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다른 지역과 일정하게 구별되는 성질을 일컫는다. 다음으로 사회적 활용가치는, 시대의 변화, 사회의 다변화, 생활환경의 변화구도 속에서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가리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상대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대의 변화, 사람들 간의 문화교류 또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것이어서 해서 무조건 향토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라 해서 저절로 향토자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향토자원과 전통지식자원의 관계이다. 향토자원이니 전통지식이니 하는 것을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려는 것은 사실상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향토자원은 ‘지역성’을 중시하는 개념이고, 전통지식은 ‘축적된 경험적 정보’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전자는 ‘지역성의 축’에 놓이는 것이고, 후자는 ‘정보 성격의

축'에 놓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다른 축선 위에 있는 것인데,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향토자원, 하나는 전통지식자원으로 표현한 셈이다. 향토자원과 전통지식자원의 주된 소재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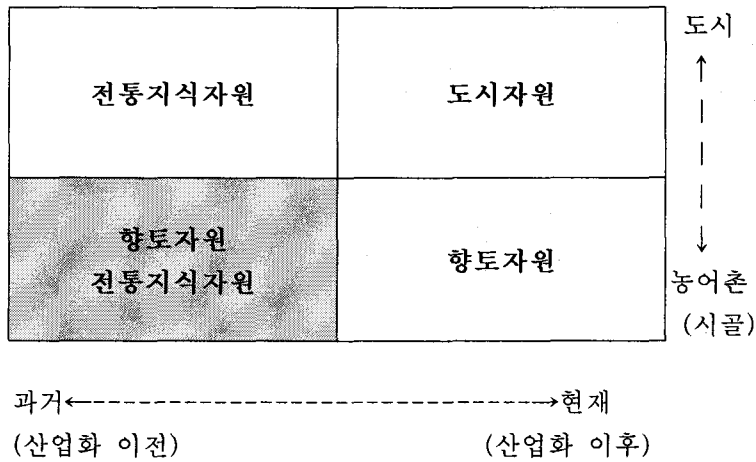


그림 1. 향토자원과 전통지식자원의 주된 소재처

향토가 주목받은 까닭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라는 점 때문이고, 전통이 주목받은 것은 서구적인 영향을 적게 받은 점 때문이다. 여기서 공통분모는 옛날부터 있었던 시골의 문화라는 사실이다. 옛 시골의 문화를 재발견하려는 것은, 시골이 아닌 곳이 좋은 곳이라는 공업화·산업화·도시화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나쁜 쪽으로 몰아간 면이 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획일화의 논리이자, 서구화의 논리였고, 또 반인문주의적 논리였으며, 중국에는 환경파괴라는 지구의 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향토자원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움직임은 곧 다양성의 논리이고, 공존공영의 논리이고, 인문주의적 논리이며, 생태주의적 논리라고 하겠다.

2) 향토자원의 범위와 분류

향토자원의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정체성과 사회적 활용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정체성은 자연환경적 특성, 역사적 경험, 사회·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것이므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류로는, 역시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자연은 사람들의 인위적 개입 없이도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문화는 사람들의 인위적 활동의 결과를 지칭한다. 사회적 활용가치는 자연에도 있고 문화에도 있으므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토자원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그리고 자연-문화 복합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전통지식자원은 문화자원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자연-문화 복합 자원 속에도 들어 있는 삶의 지혜와 지식에 관한 자원이다.

(1)자연자원으로는 경관, 명승, 토양, 지질, 저습지, 산악, 동물, 식물, 자연토산물, 천연기념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이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는 데 자연이 유용하기 때문에, 자연은 곧 자원이 되는 것이다.

(2)문화자원은 문화의 내용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문화의 전승매체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문화의 내용면에서 보면, 역사자원(옛 문화자원), 경제자원, 기술자원, 의생활 자원, 식생활자원, 주생활자원, 의례자원, 신앙자원, 예술자원, 공예자원, 사회제도자원 등이 있을 것이다. 문화의 전승매체를 기준으로 보면, 구술전승 자원, 행위전승 자원, 물질전승 자원으로 분류된다.

(3)자연-문화 복합자원으로는, 동신목, 풍치림, 인공호, 저수지, 보, 제방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 형태로 보면 자연자원처럼 보이나, 형성된 과정을 보면 인공이 깊숙이 개입된 자원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향토자원은 이 가운데서 문화자원에 해당하므로, 문화자원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대단히 방대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전통지식자원은 문화가 구술전승, 행위전승, 물질전승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전통적 지혜와 지식에 관한 자원에 해당한다.

3) 향토자원의 체계적 수집방법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토자원 수집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가져야만 한다. “세상을 있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존재한다”는 말이나,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도 적용되는 충고이다. 물론 세상은 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도 아니다. 보지 못했으면 존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는 것 이상으로 보이는 면도 틀림없이 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세상과 사물과 현상이 복합적, 다면적, 입체적, 구조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측면과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의 실체를 놓고서도 어떤 목적에서, 어떤 층위에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심도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꺾이나 다른 실체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점은 향토자원이라는 실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다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정체성과 사회적 활용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조사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잘 충족시켰을 때, 향후 향토자원의 가치가 제대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향토자원의 지역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구별될만한 특이성이나 개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여 조사해야 한다. 지역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은 별도의 연구를 요하는 것이므로 짚어두더라도, 지역정체성이 있는 자원인가를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정체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능한 것이 많다. 바로 이점이 향토자원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평가도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국에 걸쳐 조사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향토자원을 수집하거나, 이미 조사된 자료를 광범하게 섭렵한 후에 향토자원을 조사·수집·평가하는 것이다. 좀더 발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표를 만들어서 추진하되, 지역적 편차에 대해서도 타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활용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가, 어떤 점에 병을 앓고 있으며, 어떤 사항에 갈등을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사자에게 서야만 한다는 뜻이다. 다수 사람들의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다. 그렇다면 향토자원의 활용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분야 등에서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견주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향토자원의 사회적 활용가치는, 다양한 학문이 추구하는 방향과 노선을 고려하고, 또 분과 학문이 처한 한계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발견되고 포착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모두 조사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향토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수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향토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심을 갖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조사 수집 방안을 만들되, 여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향토자원의 활용시스템 구축 방향

1) 향토자원 활용을 위한 전제

(1) 생태주의 추구

산업사회는 다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조장하고, 획일성과 신속성을 지향한 사회시스템이었다. 그것이 충족시켜준 것도 많지만, 황폐화시킨 것 또한 적지 않다. 충족시켜 준 것은 경제수준 향상과 신속성이요, 황폐화시킨 것은 자연환경과 인문주의와 농어촌사회다.

이제 우리는 적당한 정도에서 만족하려는 태도와 황폐화를 완화·저지시키는 노력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아야 하고, 인문주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농촌사회를 더 이상 폐허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우리 삶이 지향하는 조화와 균형은 근본적으로 생태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사람과 자연환경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향토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바로 생태주의 모델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주의 활성화

문화 연구자들은 “지역색은 살리고, 지역감정은 없애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지역색은 지역별 개성으로서 지역정체성이기 때문에, 살려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어디를 가도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처럼 똑 같은 문화로 뒤덮여서 사람이 기계 속에 사는 형국이 되고 만다. 문화다양성은 민족 또는 국가간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민족 또는 국가 내부의 권역이나 지역마다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을 활성화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문화와 산업을 촉진하는 지역주의를 실현할 때 국가 전체, 나아가 세계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3) 내발적 발전모델 구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드물 정도로 고대국가 형성기부터 극히 최근까지 오랜 세월동안 중앙집권 통치를 해왔다. 중앙집권 통치는 획일화를 꾀하고 상명하달을 신속하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문화적·정책적 흐름의 생성을 억제하기 쉽다. 국가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주민들은 언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데 급급했다. 국가의 정책이 모든 지역에 적합할 수는 없었음에도, 주민들은 스스로 발전적인 노력을 하려는 의지를 키우기 어려웠다.

이러한 통치구조가 오늘날에도 지역 개발정책을 관주도로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관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은 타율적인 개발이었고, 그리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도 많았다. 그것은 지역실정이나 농어민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은 그나마 주민자치의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한결 용이한 것이라고 하겠다. 향토자원의 소유권이 크게 보면 주민들에게 있으므로, 주민들에 의한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4) 농어촌 기반형 산업 육성

적실성 있는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한국의 농어촌이 공동화되고 폐허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한국의 농어촌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런 편이다. 공산품이 아닌 것은 거의가 농어촌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 특히 식품은 대부분 농어촌에서 공급된다는 점, 도시의 오염물질

이 농어촌을 경유하여 걸려진다는 점, 그 밖에도 토지와 임야가 홍수나 가뭄을 조절한다는 점, 전통문화의 대부분을 더 오래토록 전승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한 근거이다. 이런 양상은 한국의 농어촌이 생태적 보고이고, 전통문화의 보루이고, 도시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 경제적 기반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농어촌을 살기 힘든 곳으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 단순한 생물학적 삶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교육문제, 혼인 문제, 의료문제 등으로 농촌에 살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농어촌에는 노인들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간혹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농촌 총각'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말하듯이, 여러 가지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사는 맛이 나도록 해야 만 농어촌 붕괴를 힘겹게라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농어촌 기반형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바, 이는 주민들이 과거에 줄곧 해왔던 것을 현대화한 것일 때, 주민자치에 의한 산업을 육성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전통문화의 선별적 계승

한국의 전통문화는 과거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달라지면, 이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지구촌의 세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적 요소를 잘 간직하고 계승하면 할수록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확실한 길이다. 현대인들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선별적으로 계승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의 개성, 한국인의 문화적 전통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

2) 향토자원 정보화의 요건과 과정

(1) 현지조사에 기초한 기록

향토자원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있다. 이미 조사·수집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미 있는 자료는 그대로 종합해야 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가치는 훈련된 사람에 의한 현지조사를 거쳐 수집되고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토자원이라는 것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호해질 수 있다. 현지조사는 개괄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2) 여러 전공자의 분석결과 정보화

향토자원의 가치는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알려지고 파악된 것도 적지 않지만, 오히려 자원가치가 발견되지 못하고 파묻혀 있는 것이 더 많다고 하겠다. 그리고 향토자원에 미리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보는 시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수집된 자원에 대해서 다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나 분석을 거칠 때 자원이치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전문가의 심도 깊은 의견까지 망라되는 정보화 작업이 요청된다. 특히 심층조사시에는 반드시 다른 분야의 전공자가 동참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향후 정보 확장을 고려한 정보화

특정 시기에 만든 제도는 그 시기의 학문, 기술, 사회상, 경제력, 필요성 등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정보화 시스템은 우리 눈에 맞는 것이지, 미래의 상황을 고려한 것일 수는 없다. 더구나 정보화는 그 이름처럼 신속하게 발전하는 속성을 띠고 있어서, 정보화 시스템과 구축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정되고 재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아울러 정보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커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나 이중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4) 지역별 정보화의 분담

전국적으로 향토자원을 현지조사하여 수집한다고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에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일정기간 안에 전국적인 조사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럴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정보화 작업을 분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물론 통일된 조사와 표준 정보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정보화 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들에 대한 연수가 필수적이다.

3) 향토자원의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1) 교육적 활용시스템

향토자원 특히 전통지식자원을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비록 당장 순수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된다. 향토자원이 갖는 지식과 지혜가 후세들에게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가치가 재발견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토자원에 대한 교육적 활용은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생산적인 활용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매체로 전환하여 교육하는 방법이 우선은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대학 교육에 향토자원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초중등학교에는 사회, 과학 등의 강좌에 <지역사회의 전통 문화와 전통기술> 단원을 중요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향토자원을 논술교육의 자료로 삼도록 할 수 있고, 전통기술과 과학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교육할 수 있다. 대학에는 <향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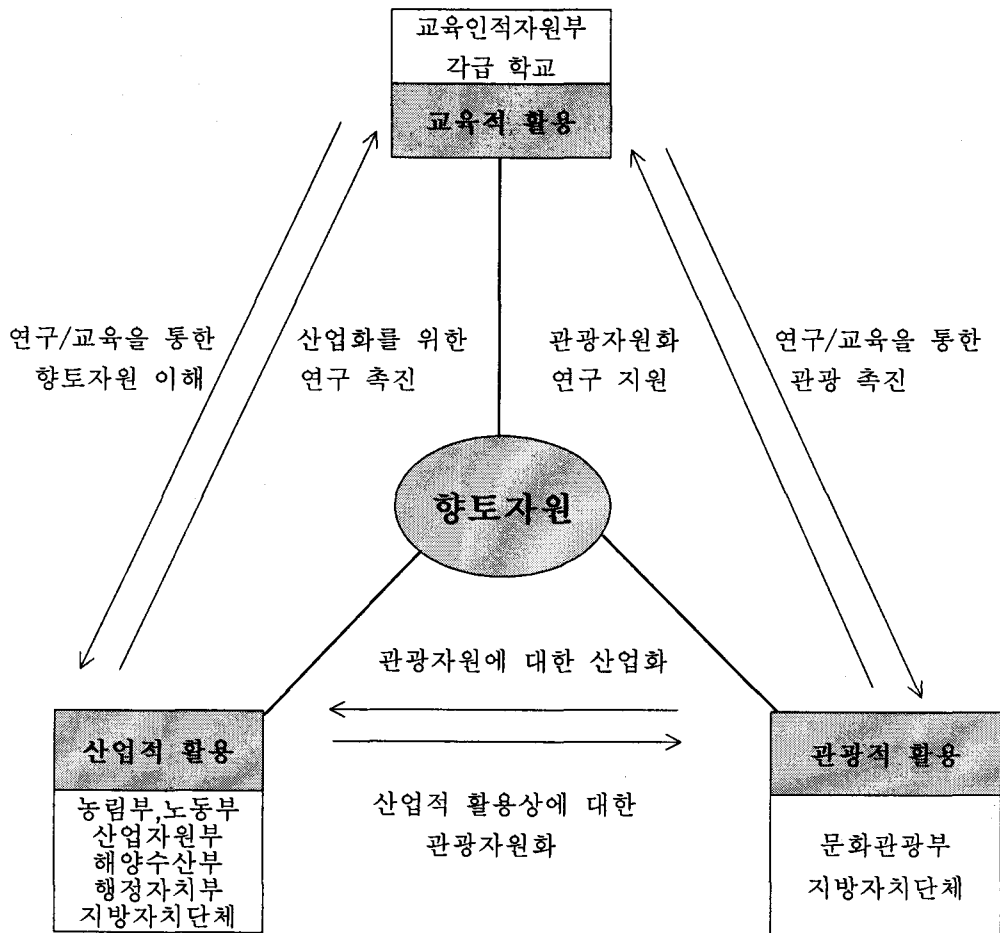


그림 2. 향토자원 활용시스템 구조도

원: 전통지식과 기술> 같은 강좌를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분야, 예술 분야에 동시 개설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이나 교육매체로 만들어서 전통지식의 논리와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주제성 있는 교육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촉발하도록 한다. 향토자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제작한 비디오, 오디오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향토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향토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향토자원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고 고양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인문과학자,

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 공학자, 예술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과제를 만들고 학술용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향토자원이 세계적 자원으로까지 그 위상이 점진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의 전통생활 속에 무르녹아 있던 전통지식 가운데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논바닥의 수평을 유지하는 논갈이 기술 / 논밭갈이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방법 / 된장의 맛을 고치고 염도를 조정하는 법 / 메주를 잘 뜨게 하는 벗짚 / 달력이 없어도 계절을 아는 법 / 나침반 없이 방위를 아는 법 / 소의 나이를 아는 법 / 민간요법의 과학성 / 온들의 과학성 / 옷에 즙이 쏘지 않게 하는 담배와 천궁 / 통기성을 가지되 물이 새지 않는 옹기 / 한국 鐘의 맥놀이 현상 / 외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초가집의 과학성 / 강원도 거리쟁기질의 과학성과 합리성 / 씨레질의 누수 방지 효과 / 바가지의 식품 안정성 / 숲의 의학적 우수성 / 청국장 건강성 / 움집의 과학성 등등

(2) 산업적 활용시스템

향토자원의 산업화는 전통적인 것을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널리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향토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이로써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향토자원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향토자원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화를 위한 경제성이 무엇인지 적출되어야 한다. 이미 있는 향토자원이라도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를 전제로 접근할 때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기존산업에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틈새전략'을 구사한다는 연구방향 설정도 한 몫을 할 것이다. 비록 산업화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접근하면, 기존의 것과 유사하지만 차별화되어 가치가 더 큰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향토자원의 경우에는 그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는 홍보지나 포장지를 만들면, 상품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향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개발주체는 농어민, 지자체, 기업, 대학기업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 가운데서 대기업이나 대학기업 등이 개발주체가 될 경우 농어민의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가급적 농어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영농법인의 형태와 유사한 법인체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떤 형태의 산업화모델이 되더라도,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시장개척을 위

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를 피할 경우, 시장 수요를 예상하여 원료 조달의 용이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 향토 지적재산 활용 지역특화상품 개발 : '안동식혜' '안동 곤짬지' '안동 콩가루음식' '안동간고등어' '생냉이 직물인 안동포' '버버리 찰떡' 등

○ 전통식품의 산업화 : 건강성을 담보하는 전통식품의 산업화

○ 지역특산물 마을 육성 : 안동포마을, 순창고추장마을, 안동산약마을

○ 전통공예 기술을 신소재 개발의 아이템으로 활용

- 안동포를 이용한 소재개발 : 항균성 직물로 활용

- 길쌈용 풀을 이용한 산업용 풀 개발 : 보습효과와 강도상승효과

- 한지 제조에 활용되는 황축규의 산업화 : 풀면 풀리고, 건조하면 없어지는 풀

- 옷칠의 산업화 : 부식 방지와 방수 효과의 옷칠.

- 송진의 산업화 : 조선시대의 미라가 나오는 무덤의 관 주위를 바른 것 가운데 하나가 송진이다.

- 강희의 산업화 : 조선시대 회곽묘도 물과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미라를 만드는 요인이므로, 강희를 공업용으로 사용 가능

- 합금 담금질의 산업화 : 성덕대왕 신종의 걸쇠는 조선시대에 만든 직경 8센티미터의 합금 단조품으로서 18.9톤의 성덕대왕신종을 거뜬히 지탱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기술로서는 도저히 제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 각궁을 만드는 데 쓰는 접착제 민어 부레풀 : 서로 다른 강도와 신축성을 가진 나무와 물소뿔을 붙임

- 짚신, 명석의 과학성과 그 산업화 : 발이 시리지 않는 짚신, 습기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 명석

○ 틈새전략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과 운영 : 안동식혜는 대단히 독특한 식혜인데, 이것을 '식혜'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는 순간 사업은 망하게 되고, 반대로 '안동양반 드링크' 이런 식으로 명명할 때 성공할 수 있다.

○ 지역 자연자원을 이용한 기념품 개발

○ 전통지식 중, 사주, 관상, 명리, 수상, 택일 방법의 국제산업화

○ 전통지식에 대한 도서 출판, 디지털 콘텐츠 개발 : 전통과학과 기술 등

(3) 관광적 활용시스템

성공적인 관광이 되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 주민들까지도 함께 보람을 느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관광산업이 되려면,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들도 관광산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관광 아이템의 조건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봐야 맞다. 자신들이 평소에 경험하고 삶의 일부로 가진 것은 당연히 그러한 관광자원으로 분류된다. 향토자원, 전통지식자원은 바로 그런 점에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다음으로 관광객이 만족하고 감동과 보람을 느끼는 관광이 되려면, 어떤 지역의 경관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관람, 이해, 체험을 동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잘 나타나지 않거나,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특정 지역에서 강하게 표출될 때 지역정체성이 뚜렷하다고 평가된다. 결국 지역의 장소성, 역사성, 문화적 특징이 부각되는 관광자원에 대하여 관광객들이 감동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이 강한 향토자원을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나 관광객에게 다함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향토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라면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이 함께 추진하되, 특별히 전통지식자원 보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들과 함께 협의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 관광자원화 모델을 농어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할 경우 개발의 실효성이나, 성공의 가능성이 박약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있는 전통지식자원이나 전통문화의 문법을 알아야 관광의 효과가 살아나는 경우, 전통문화의 문법을 체험관광의 중요한 연계 고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자연자원의 관광 활용 : 경관, 호수, 절경, 생태적 보고 등
 - 문화자원의 관광 활용
 - 의례음식의 관광산업 : 안동헛제사밥, 하회 한과, 봉화 닭살 한과 등
 - 공예의 체험관광산업 : 장승만들기, 탈만들기, 한지만들기, 부채만들기 등
 - 축제의 체험관광 : '전통문화 문법' 활용 체험관광
 - 자연-문화 복합자원의 관광 활용
- 지역의 저수지, 풍차림, 인공호 등이 갖는 고유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화

4. 향토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1) 향토자원 수집·분석 단계의 정책

(1) 향토자원 수집 단계의 정책

향토자원의 수집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은 전국에 산재한 향토자원을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이 서로 제휴하여 향토자원을 정밀하게 수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시간에 모든 향토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향토자원을

수집한 다음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집단계에서는 인문과학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들이 누적적으로 형성해온 삶에 대한 관심이 인문과학자들에게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1차 조사는 개괄조사로, 2차 조사는 심층조사로 하되, 심층조사는 특별히 자원가치가 높고 활용가능성이 큰 것에 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향토자원의 가치 분석과 정보화 단계의 정책

향토자원의 가치 분석 단계에서는 인문과학자, 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 공학자, 예술가의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 어떤 자원인가에 따라서, 요구되는 지식과 전문성이 달라지므로, 전공자별 장점을 십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원을 여러 전공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견된 가치를 집적하여 관리할 수 있는 '향토자원 통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향토자원 통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시간을 두고 새롭게 해석된 정보를 추가 등록하여 정보의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향토자원 통합정보관리 체계는 가장 먼저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향토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1) 향토자원의 가치 탐색과 홍보 정책

향토자원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고 있을 테지만, 그 가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개중에는 아직 가치가 발견되지 못한 것도 많다. 설명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원일지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다.

향토자원에 내재하는 가치는 향토자원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발견된 가치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상대로 한 가치 설명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들은 농어촌 주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 특성상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할 것은 별도의 보안이 요구된다.

(2) 향토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지원정책

첫째, 향토자원의 기록화가 필요하다. 향토자원은 농어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할 때, 자료가 없거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오래토록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문서화해두어야 한다. 이것은 훗날 향토자원 가운데 상당수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한 때 뿌리 깊은 나무에서 기획하여 발간한 『민중자서전』처럼 '전통지식 보유자' 총서를 발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향토자원의 영상화가 필요하다. 향토자원 가운데 특히 전통지식자원의 경우에는 영상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그 가치와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눈으로 보지 못했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무척 다행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향후 방송매체, 교육매체로서 그 유용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셋째, 향토자원의 정보화가 요구된다. 향토자원에 관한 다양한 측면과 사실을 정보화할 때, 훗날에도 옛 정보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3) 향토자원 활용 개발방안 연구지원 정책

향토자원의 활용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자원의 가치가 발견된 이후에 더 분명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의 가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활용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활용도는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토자원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활용을 위한 개발 방안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향토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지원하여야 할 일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농림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4)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 특허권 추진 정책

향토자원 소지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 특허권 부여를 추진한다. 향토자원을 산업화 하더라도 개발사업시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지식보유자’ 지정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특별히 잘 하는 사람, 남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 종가의 종부들처럼 의례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등등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 지식이 산업화 될 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정 보상을 회사가 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처럼 지식전승을 위한 지원금을 소액이라도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5) 향토자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

향토자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정규교과목의 단원에 배정하는 방안, 그리고 각급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에 향토자원에 대한 학습을 하는 방안, 향토자원 생산 과정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향토자원에 대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 교사를 상대로 하

는 연수프로그램, 또는 향토자원을 이용하는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교육법을 활용하여 전통 민간교육에 대하여 제도적 인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전통공예에 대한 자연과학자의 실험연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정책

향토자원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든, 전통기술을 산업화 하든, 전통소재를 산업화하든 중요한 것은 향토자원을 산업화할 때 세계적 차원에서 의장등록, 특허 등을 추진하는 일이다. 그리고 토착적 기술과 경험으로써 다양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는 향토자원(특히 전통지식자원)을 전승하고 있는 현지 주민이 산업화의 주역이자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크게 드러내고 홍보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비로소 농어촌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면서 축적한 지식과 지혜가 현대사회에서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싹틀 것이고, 그 결과 농어촌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이 생길 것이고, 나아가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자체 전승의 에너지도 생길 수 있다.

(7) 향토자원의 문화자원화·관광자원화 정책

향토자원을 이용하여 문화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그리고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지자체가 공동 협력한다. 특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노하우를 탐색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토자원 가운데서 역사적 기념물의 성격이 띠는 유형문화재보다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머리로, 몸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향토자원을 문화자원화·관광자원화 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때로는 전통의례, 전통예술을 관광자원화 하되, 그 속에 깔린 문화적 논법을 관광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8) 특구 지정을 통한 지원과 관리 정책

향토자원의 상품화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권역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특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되, 해당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향토자원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중국에는 모두가 함께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향토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밖에서는 복제와 모방을 금지하게 하는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9) 향토자원 관리 활용 진흥법 제정 추진

향토자원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녕 하나로 통합된 법령조차 제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향토자원의 소재처는 농어촌이므로, 농림부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농림부와 같은 부처는 향토자원이 소재하는 현장과 연관성이 큰 것이고, 이를 산업화하는 데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의 역할도 필연적이다. 향토자원 가운데서 문화재와 같은 것은 또한 문화관광부의 소관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여러 부처에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 향토자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어느 부처에서 향토자원을 관리·활용하든 관계없이 그 관리 활용에 관한 진흥법을 제정할 필요는 있다.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부처에서 향토자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이 법령에 근거하여 여러 부처에서 각자의 관점에서 향토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다.

5. 맺음말

향토자원이나 전통지식자원을 현대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모델, 산업화 모델에서 탈피하여 후기 산업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후기산업화 모델은 국가·민족·지역·소공동체·집단마다 다양한 지식·지혜·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향토자원이 각광을 받는 주된 배경은 획일화된 방식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산업화 모델의 한계를 직시하고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체제와 문화를 건설하려는 문명사적 흐름에 있다.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곧 생태주의요, 지역주의요, 향토주의요, 문화다양화의 길이다. 교육도, 산업도, 경제도, 정치도 이러한 이념에 기초하여 추구될 때, 향토자원의 가치는 새롭게 발견될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팽개쳐지고, 잊혀져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과학적 지식과 논리, 기술을 되찾고, 그 속에서 미래의 우리가 건설할 아름답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의 틀을 구축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진정 무엇이 우리 민족의 가치인지를 차분하게 따져보고, 그 가치를 현대사회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다방면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효성 있게 모색된 방향과 대안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착실히 병행될 때, 향토자원과 전통지식은 민족의 자산이요, 전 인류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향토자원에 대한 활용은 크게 교육 차원, 산업 차원, 관광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 교육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이룬다. 교육을 위해서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토자원의 활용은 무엇보다 연구사업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연구를 해봐야 그 본질적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도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만이,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향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바, 시급한 것은 전문가에 의한 향토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수집, 관리이다. 그리고 향토자원에 대한 가치 발견이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제휴하는 한편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통지식을 보유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되는 전통지식 소유자는 ‘전통지식보유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경우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만 있었던 향토자원의 ‘지리적 권역화’ 혹은 ‘전승지역 제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김상범, 200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향토자원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3권 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 김춘동, 2000, 「니시지마 화지와 지역활성화」, 『한국문화인류학』, 제33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현호·한표환·김홍래, 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옥표, 2000, 「일본농촌의 관광개발과 지역활성화」, 『농촌사회』, 제8집, 한국농촌사회학회.
- , 2000, 「관광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하회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3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박경용, 2002, 「역사도시 경주의 문화상품과 역사문화유산의 사회적 실천」, 『고문화』, 제59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배영동, 1998, 「향토사와 향토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향토사연구』, 제10집,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 2002, 「산간마을의 삼베길쌈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 『호서고고학』, 제6·7합집, 호서고고학회.
- , 2003, 「안동포 생산과 소비의 전통과 현대적 의미」, 『한국민속학』, 제37집, 한국민속학회.
- , 2006, 「안동지역 간고등어의 소비전통과 문화상품화 과정」, 『비교민속학』, 제31집, 비교민속학회.
- 이해준, 1998,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방안」, 『백제문화』, 제27집, 공주대학교 백제연구소.
- , 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 , 2004,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백제문화 콘텐츠 확대방안」, 『백제문화』, 제33집, 공주대학교 백제연구소.
- 임재해, 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 , 2004, 「문화자산으로서 민속문화 유산의 경제가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27집, 비교민속학회.
- 황종환, 1998,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토지적재산 관리전략」, 『지적소유권법연구』, 제2집, 한국지적재산권학회.
- 허용호, 2006, 「전자문화지도 연구에서 민속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비교민속학』, 제31집, 비교민속학회.

【토론 1】

배영동 교수의 ‘향토자원의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강진갑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1. 본고는 “한국향토자원, 특히 전통적 지식을 여하히 활용할 수 있는가”와 이를 위해 “어떤 작업과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가”를 살펴 본 글이다.

필자는 향토자원을 크게 교육, 산업, 관광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향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역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향토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수집, 관리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의장등록, 특허, 법인화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향토자원관리활용진흥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평자도 필자의 이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2. 그러나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향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향토자원이 소비자가 원하는 자원인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고, 향토자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유통 경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제시가 없는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둘째 필자는 향토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지자체 등 공공영역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협력 결과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아쉽게 생각된다.

향토자원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지역축제이다. 전국에서 많은 축제가 열리

나 투입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축제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여 지역 경제활성화가 목적인지, 지역정체성 확립이 목적인지, 지역주민의 단합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축제가 축제를 통해서 너무 많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여 축제 성격이 모호해져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축제를 추진할 때는 중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고, 지역주민과 유리되어서도 안 되고, 홍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획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관광자원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정 향토자원을 관광자원화하려면 먼저 관광자원간의 연계 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관광객이 단일한 관광자원만 체험내지 관람하기 위해 관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요한 홍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교통, 도로, 숙박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적절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토자원이 성공적으로 산업자원,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소비자 관점에서의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끝으로 농촌의 향토자원을 산업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갖춘 도시와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통신혁명은 '거리의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농촌의 향토자원을 구매력이 강한 도시와 바로 연결시키는 방안은 농촌과 도시간의 '거리를 소멸'시킬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일 것이다